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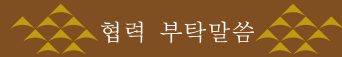
고미즈노 천황의 행차

도쿠가와 가문의 지위를 다지기 위해 2대 쇼군 히데타다의 딸 가즈코가 1620년 고미즈노 천황의 중궁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1619년에 니조성의 수리가 이루어졌고 1620년 6월 18일 많은 종자들과 함께 니조성에서 황궁으로 향했다. 1626년 이미 은퇴한 2대 쇼군 히데타다와 3대 쇼군 이에미쓰는 니조성을 방문하여 5일간의 고미즈노 천황의 행차를 맞이했다. 니조성은 행차를 계기로 1624년에 확장되어 현재의 규모가 되었다. 천수각과 행차 궁전, 혼마루 궁전 등이 축하를 위해 증설되었다. 쇼군 전속 화가인 가노파가 장려한 벽화를 그렸다. 행차에 맞추어 가면극과 단가, 전통음악, 승마, 공놀이 등이 펼쳐졌다. 행차 후 행차 궁전과 일부 건물이 해체되었고 천수각과 혼마루 궁전은 후에 소실되었다. 니노마루 궁전은 니조성이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행차 시기의 중요한 유물이다. 1635년~1863년까지 쇼군이 머물지 않게 된 니조성은 황폐해져 갔다.

다이쇼 천황 즉위식

메이지 천황의 뒤를 잇는 다이쇼 천황의 즉위식이 1915년 황궁에서 열렸다. 즉위식에 참석한 귀족과 외국 고위직 인사, 총리 등이 니조성 향연에 초청되었다. 니조성은 메이지유신 이후 별궁이었기 때문이다. 향연을 위해 새로운 건물이 많이 지어졌으나 향연 후에 철거되어 현재는 남문만이 남아있다.

‘세계유산 니조성 소액 성주 모금’



교토시는 세계유산 니조성을 후대에 보존·계승하기 위해 국보 니노마루 궁전을 비롯한 문화재 건조물 등의 본격적인 수리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리 사업은 축성 이래 대규모 공사로 많은 자금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니조성 소액 성주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송옹도’ 대형실 제4실

(교통)
교토시영지하철 ‘니조조마에’ 하차
서비스 ‘니조조마에’ 하차

[개장 시간]
◆입장
8:45~16:00
(폐장 17:00)

교토시 니조성 사무소

〒604-8301
교토시 나카교구 니조도리 호리카와 니시이루
니조조초 541
TEL:075-841-0096 FAX:075-802-6181
URL : <https://nijo-jocastle.city.kyoto.lg.jp/>

発行：令和8年2月
京都市印刷物 第071748号



옛 별궁 니조성

세계유산

도쿠가와 가문의 흥망성쇠와
일본 역사의 변천을 간직해 온 니조성





니조성의 역사

축성 후 400년 동안 일본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들과 함께 해온 니조성. 니조성은 에도막부(1603~1867)의 창시자이자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으로 1603년에 완성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랜 전국시대를 거쳐 일본을 통일하고 26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룩했다. 이에야스 이후 15대까지 이어진 에도막부는 일본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번영한 시대였다. 1600년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가문이 일본을 통일했고 1603년에 이에야스는 천황의 명으로 쇼군이 되었다. 그 후 이에야스는 니조성에 모인 영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니조성은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된 것이다.

가끔 이에야스가 교토를 방문했을 때 니조성은 이에야스의 주거가 되었다. 이에야스가 없을 때는 에도(도쿄)에서 파견된 니조성 경비병이 배치되었다.

1614년 이에야스는 니조성을 나와 오사카성을 포위하고 다시 니조성에 복귀했다. 오사카성에서 거둔 이에야스의 승리로 도쿠가와 가문 이전에 일본을 통치했던 도요토미 가문의 명맥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정치적 통치자의 지위가 도쿠가와 막부에 있음을 확고히 했다. 1624년 에도막부 3대 쇼군 이에미쓰는 2년 후의 고미즈노 천황 행차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천황을 니조성에 맞이하는 것은 에도막부의 지배가 안정적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1867년 니노마루 궁전 대형실에서 15대 쇼군인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정권을 반납하고 영주들 앞에서 도쿠가와 막부가 끝났음을 선언했다. 이로써 메이지시대가 시작되고 일본은 봉건제에서 근대 민주국가로 급속한 변화를 이루었다. 니조성은 봉건제의 마지막 무대이자 근대 일본 시작의 무대가 된 것이다.

400년 전에 만들어진 니노마루 궁전, 당문, 니노마루 정원 등은 일본의 건축과 디자인의 황금기인 에도시대 초기의 귀중한 유적이다.

- 1601년 |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서일본 영주들에게 니조성 축성을 지시
- 1603년 | 니조성 완성 (현재의 니노마루 부분) 이에야스 첫 입성
- 1750년 | 8월 낙뢰로 5층 천수각 소실
- 1867년 | 10월 니노마루 궁전에 교토 번의 중신들을 모아 요시노부가 대정봉환의 뜻을 표명



도쿠가와 이에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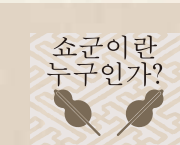
- 1884년 | 황실의 별저 '니조 별궁'이 됨
- 1915년 | 다이쇼 천황 즉위식에 맞추어 대향연장 건설(현 청류원 자리). 남문 완성
- 1939년 | 궁내성이 니조 별궁을 교토시에 하사
- 1994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2011년 | 본격적인 니조성 수리 사업에 착수

대정봉환



1867년 에도막부의 통치가 끝나고 천황에 대한 주권 이양이 니조성에서 표명되었다.

18세기 말에 외국인 사절단이 쇼군에게 요구한 약 200년간의 쇄국정책 폐지 요구와 통상 요구로 인해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남쪽 지방의 무사들은 무력으로 에도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에게 주권을 넘길 것을 계획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1867년 10월 13일 니조성에 40개 번의 중신을 불러 의견을 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천황에 대한 주권 반환을 표명하고 1867년 10월 15일 천황이 이를 승낙했다. 다소 무력 충돌은 있었으나 1868년 봄에 평화롭게 에도성이 조정으로 인도되면서 에도막부가 끝나고 근대 일본이 시작되었다. 이를 주권이 천황으로 돌아가고 메이지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 부른다.



4세기에 시작된 천황의 조정 통치는 694년 본격적인 도성이 나라에 만들어진 이후에도 형태를 바꾸면서 계속되었다. 천황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권은 무사가 쥐고 있었다. 무사의 우두머리는 나중에 쇼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쇼군의 기원은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최고사령관이나 대원수와 같은 직책이다. 쇼군은 본래 동북지방의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 임명되었으나 1192년 이후 일본의 정치적 실권자에게 주어지는 직책이 되었다. 일본에는 가마쿠라막부(1185~1333), 교토에 거점을 둔 무로마치막부(1336~1573), 에도막부(1603~1867) 등 3대 막부가 존재했다. 니조성은 에도막부의 강력한 권력이 교토에도 미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국보 니노마루 궁전

니노마루 궁전에는 에도시대 초기(1603-1867)의 건축양식인 쇼인즈쿠리가 도입되었다. 니조성에 현존하는 유일한 궁전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궁전 안은 가노파의 그림과 방과 방 사이에 섬세하게 조각된 문 상단 조각, 곳곳에 장식된 화려로운 장식구 등 쇼군의 거처에 어울리는 화려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국보 유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궁전 내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 무사 대기소 제1실 제2실 제3실

무사 대기소의 규모는 니노마루 궁전 중 최대이다. 무사 대기소의 웅장함과 미달이문·벽에 그려진 용맹스러운 호랑이 그림은 도쿠가와 가문의 강대한 권력을 실감케 한다.



무사 대기소 제3실 죽림군호도

2 가신 대기소

가신 대기소는 영주들의 대합실과 쇼군 알현실을 잇는 장소이자 방문자가 쇼군에게 공물을 헌상하는 장소였다. 쇼군 알현에 필요한 수숙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이 건물은 앞쪽의 '가신 대기소'와 뒤쪽의 '고위직 관리실'로 나누어져 있다. 영주와 고위직 관리는 '고위직 관리실'에서 인사를 나누었다. 장벽화에 그려진 소나무는 영원한 번영과 행운을 상징한다.

3 대형실 제3실

제3실에 장식된 조각은 매우 훌륭하다. 두께 35cm의 노송나무를 양면에서 다른 무늬로 새긴 문 상단 조각과 화려한 꽃 모양 금장식 기둥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대형실 제3실(문 상단)

4 대형실 제1실·제2실

대형실은 니노마루 궁전의 주실로 쇼군이 영주나 상급 관리와 대면하는 곳이었다. 대형실에는 '제1실'과 '제2실'이 있다. 제1실은 제2실보다 바닥이 높다. 대면 시 쇼군은 제1실에서 남쪽을 향해 앉았다. 제1실에는 3개 족자가 걸린 도쿄노마(장식마루)가 있고 그 옆에는 공예품으로 장식된 선반이 있다. 정면 오른쪽의 장식문(조다이가마에)에는 빨간 매듭이 달려있으며 왼쪽에는 돌출창이 있다. 장벽화는 가노 단유의 작품이다.



대정봉환이 표명된 대형실 제2실에서 본 제1실

7 대형실 제4실

쇼군이 교토에 머무는 동안 무기를 보관하던 곳이다. 장벽화 '송운도'는 니노마루 궁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모모야마 시대의 양식을 도입한 큰 소나무와 독수리가 그려져 있다.



대형실 제4실

8 가신 대기소 고위직 관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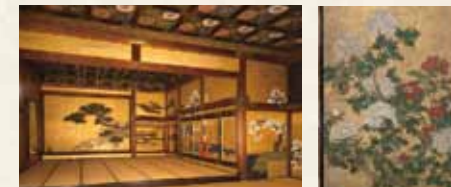
고위 관리의 대기실이다. 제1실과 제2실에는 봄, 여름, 가을의 기러기가 제3실에는 겨울의 백로와 버드나무가 그려져 있다. 궁전의 다른 방과는 달리 중진방 위는 흰색 벽이며 장식은 소박한 편이다.



가신 대기소 고위직 관리실

5 후서원

에도 시대에 '소형실'로 불린 후서원은 대형실 다음의 공식적인 공간이다. 쇼군·도쿠가와 가문과 친분이 있는 영주나 고위 귀족이 대면한 곳으로 내부는 편안하고 친숙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제1실과 제2실은 만개한 벚꽃이 눈길을 끌며 '벚꽃실'이라 불린다. 살짝 눈에 덮인 소나무 가지와 매화, 지는 벚꽃 등의 장벽화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준다. 장벽화는 가노 단유의 동생인 가노 나오노부의 작품이다.



후서원 제2실에서 본 제1실

후서원 모란실

9 무사 대기소 칙사실

궁전의 매우 중요한 방으로 조정의 사자(칙사)를 맞이하는 장소였다. 물을 배경으로 초여름의 청단풍을 그린 벽화가 있다.



무사 대기소 칙사실

6 백서원

에도 시대에는 쇼군의 거실과 침실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수목화에 둘러싸인 공간은 이곳만의 차분한 느낌이 특징이다. 중국을 소재로 하여 제1실과 제2실에는 명승지 서호(西湖), 제3실에는 전설·역사상 인물이 그려져 있다.

10 무사 대기소 버드나무실

장벽화에 그려진 버드나무가 세련된 귀족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칙사실' '부용실' '약송실'의 공통된 테마는 식물이다.

니노마루 궁전의 장벽화

니노마루 궁전에는 3,600점 이상의 장벽화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간에이시대(1624~1645) 작품이다. 이들 장벽화 중 1,016점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간에이시대 장벽화는 도쿠가와 가문의 후원을 받아 활약하던 가노파(대표: 가노 단유)의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1626년 고미즈노 천황 행차에 맞추어 니노마루 궁전을 개축했을 때 그려진 것이다.

